A17

신생검을 시행한 노인환자의 임상상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병리학 교실*,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빈기태,김종섭,오선미,김성숙,이강욱,이정호**,서광선*,신영태

신장 질환의 진단, 치료 및 예후 결정에 있어서 신생검을 통한 신조직의 광학 현미경, 면역형광 현미경, 전자 현미경 검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노인들의 신장질환에서 신장 조직 검사등 침습적인 검사는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연자들은 1986 년에서 1995 년 2월까지 충남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신생검을 시행한 60 세이상의 노인 30 명에서 신장 조직검사의 유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신생검을 하게된 원인, 병리학적 진단, 치료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였다.

대상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65세 (60 - 78)이었고, 남.여 비율은 1 대 1 이었다. 대상환자중 60세에서 65세사이가 17명 (56.7 %)으로 가장 많았으며 70 세 이상은 5 명이었다. 신생검을 시행하게된 이유로는 신증후군이 17명 (56.7 %)이었고, 급성 신부전이 7명 (23.3 %), 무증상 단백뇨 또는 혈뇨가 3명 (10 %), 전신질환에 동반된 사구체 신염이 의심된 경우가 3명 (10 %)이었다. 신생검 결과로는 일차성 사구체 질환이 20명 (66.7 %)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Ig A 신증과 막성 사구체증이 각각 5명씩이었고,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신염이 4 명, 미세 변화성 신염이 3 명, 미만성 증식성 사구체신염이 1명, 미만성 사구체경화가 2명이었다. 이차성 사구체 질환은 6명 (20%)에서 발견되었으며, 이중 유분전증이 3 명이었고 당뇨병성 신증, B 형 간염 바이러스성 신염, Henoch-Schoenlein 자반증성 신염이 각각 한명씩이었다. 급성 간질성 신염은 4 명으로 13.3 %를 차지하였다. 일차성 사구체 질환으로 인해 신증후군이 발생하였던 13명중 7명에서 6개월이상 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억제 치료를 시행하였다. 치료의 결과로 완전 관해를 보인 경우가 4명, 부분관해가 1명이었고, 2명에서는 치료에 반응이 없었다. 완전 관해가 되었던 4명의 환자 중 2명은 미세 변화성 신염환자이었고, 2명은 막성 사구체신증 환자였다. 치료에 반응이 없었던 환자 2명은 모두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신염환자였다. 급성 간질성신염환자 4 명중 3 명에서 혈액투석치료 및 스테로이드 투여로 호전되었으며 1 명에서는 특별한 치료없이 회복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노인에서 발생한 각종 신장질환에서도 신생검을 하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치료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함 금기사항이 없다면 고령의 환자에서도 신생검이 신장질환의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A18

전신성 홍반성 낭창에 동반된 폐쇄성 요로증

한양 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문두섭*,박용수,손주현,안명주,이정희,김호중

전신성 홍반성 낭창은 다양한 장기를 침범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비뇨 생식기계의 침범은 전통적으로 사구체신염에 국한된것으로 생각되어왔으며 이는 전신성 홍반성 낭창이 어느 장기에도 침범할 수 있다는 법칙에 예외가 된다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본 저자들은 전신성 홍반성 낭창으로 진단되었던 환자에서 배뇨곤란, 소화기 증상, 신장기능저하가 발생하여 조사한 결과 만성 간질성 방광염, 요관방광이행부 협착이 있으며 이로 인해 양측으로 요관수류 및 수신증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다. 또 방광의 혈관에서는 면역복합체의 침착이 발견되어 만성 간질성 방광염이 전신성 홍반성 낭창에 의해 이차적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환자에서 steroid 를 사용하여 소화기증상과 배뇨곤란은 호전되었으나 폐쇄성 요로증이 계속 지속되어 양측에 신루설치술을 시행하였으며 cyclophosphamide pulse therapy를 시행하였다. 그 이후에 폐쇄성 요로증이 호전되어 신루설치술을 제거한 이후에도 환자상태는 양호하게 유지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서 본 저자들은 문헌에서 이에 대한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던 전신성 홍반성 낭창에 의해 나타난 폐쇄성 요로증의 임상적 특성을 알고자하여 본례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전세계에 보고된 19례를 고찰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관찰하였다. ①대부분의 환자는 여성이였으며(평균연령 : 31.7세), 동양인이 63%를 차지하고 있었고, ②89%에서 간질성 방광염이 있었으며 소화기 침범 (89%)이 흔히 동반되었고 진행된 사구체 신염(WHO class IV or V)을 동반하고 있었다 (67%). ③많은 환자에서 steroid에 반응이 있었지만 (68%) 수술적 요법을 요하거나 (32%)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32%). 결론적으로 전신성 홍반성 낭창 환자에서 폐쇄성 요로증은 일어날수 있으며 이는 주로 간질성 방광염과 연관되어 있었으며 이의 조기 발견과 치료는 신기능저하와 구조 변화를 최소화시킬수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